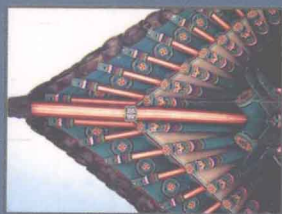


李承梅 李龙海 编著

韩国社会与文化

한국 사회와 문화



中国海洋大学出版社

中国海洋大学教材建设基金资助

李承梅 李龙海 编著

韩国社会与文化

한국 사회와 문화

青岛·中国海洋大学出版社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韩国社会与文化: 朝鲜文 / 李承梅, 李龙海编著. — 青岛: 中国海洋大学出版社, 2007.6

ISBN 978-7-81067-987-9

I. 韩… II. ①李… ②李… III. ① 朝鲜语—高等学校—教材
② 韩国—概况—高等学校—教材 IV. H5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7) 第 021147 号

出版发行 中国海洋大学出版社
社 址 青岛市香港东路 23 号 邮 编 266071
网 址 <http://www2.ouc.edu.cn/cbs>
订购电话 0532-82032573(传真)
责任编辑 何 结
印 制 淄博恒业印务有限公司
版 次 2007 年 6 月第 1 版
印 次 2007 年 6 月第 1 次印刷
成品尺寸 144 mm × 215 mm 1/32
印 张 14
字 数 450 千字
定 价 25.80 元

목 차

韓 國 概 貌

제1장 自然地理	(2)
제1절 韓半島의 地形과 氣候	(3)
제2절 韓國의 自然地理	(8)
제2장 韓國의 상징	(20)
제1절 國號와 國旗	(20)
제2절 國歌·國章과 國花	(26)
제3절 民族과 언어·문자	(29)
제3장 인구와 資源	(34)
제1절 인구	(34)
제2절 資源	(40)
제3절 韓國의 國土 開發	(42)
제4장 韓國의 行政區域	(51)
제1절 首都圈	(52)
제2절 關東지방과 忠淸지방	(62)
제3절 호남지방	(68)
제4절 영남지방	(72)
제5절 제주도	(80)

韓國歷史

제1장 韓民族의 形成과 古朝鮮	(84)
제1절 한민족의 형성과 선사 문화	(85)
제2절 고조선의 건립 발전 및 멸망	(87)
제3절 기타 나라와 진국	(90)
제4절 고조선시기의 문화	(92)
제2장 三國時期	(95)
제1절 高句麗	(95)
제2절 百濟	(100)
제3절 新羅	(103)
제4절 伽倻國	(108)
제5절 三國時期的 文化	(110)
제3장 統一新羅時期	(117)
제1절 新羅에 의한 三國의 統一	(117)
제2절 統一新羅의 發展	(120)
제3절 統一新羅와 唐의 關係	(122)
제4절 新羅 後期の 混亂과 後三國	(125)
제5절 統一新羅의 文化	(128)
제4장 高麗時期	(130)
제1절 高麗의 門閥貴族社會의 전개	(130)
제2절 高麗와 中國의 관계	(133)
제3절 高麗時期的 文化	(144)
제5장 朝鮮時期	(148)
제1절 朝鮮前期 兩班社會의 建立	(148)
제2절 朝鮮後期 사회적 변화	(155)

제3절 朝鮮의 近代國家 運動과 日本에 의한 국권침탈...	(159)
제4절 朝鮮時期 中國·日本과의 관계	(164)
제5절 朝鮮時期 文化	(175)
제6장 日本占領時期	(185)
제1절 민족의 수난	(185)
제2절 항일 독립 운동	(188)
제3절 민족문화수호 운동	(191)
제7장 광복과 남북 분단	(195)
제1절 8.15 광복 및 38°선의 설정	(195)
제2절 남북 분단.....	(197)

政 治 · 經 濟

제1장 政權 沿革	(202)
제1절 정부 수립과 제1·2공화국	(202)
제2절 제3·4공화국-박정희 정부	(208)
제3절 제5·6공화국.....	(210)
제4절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211)
제2장 韓國 憲法과 통치구조	(216)
제1절 韓國憲法	(216)
제2절 통치구조	(219)
제3장 韓國 政黨.....	(230)
제1절 정당의 전개과정	(230)
제2절 야당세력의 변천	(232)
제3절 여당세력의 변천	(236)

제4절 좌파정당의 부침	(239)
제5절 한국정당의 문제점	(240)
제4장 韓國의 國際關係	(242)
제1절 정책변천	(242)
제2절 한·미관계	(244)
제3절 한·일관계	(247)
제4절 한·중관계	(250)
제5절 한·러관계	(251)
제6절 제3세계와의 관계	(253)
제5장 韓國의 統一外交	(255)
제1절 제1·2공화국 통일외교	(255)
제2절 제3·4공화국 통일외교	(257)
제3절 제5·6공화국 통일외교	(259)
제4절 문민·국민·참여정부 통일외교	(261)
제6장 韓國의 軍隊	(263)
제1절 韓國 軍隊의 形成과 성장	(263)
제2절 한·미 군사협력	(264)
제7장 韓國 經濟	(267)
제1절 經濟發展 概況	(267)
제2절 韓國 經濟 快速發展의 成果	(272)
제3절 한국 경제발전의 문제점과 경제위기의 극복	(280)

文化 · 民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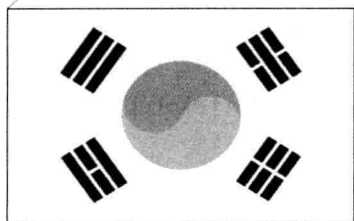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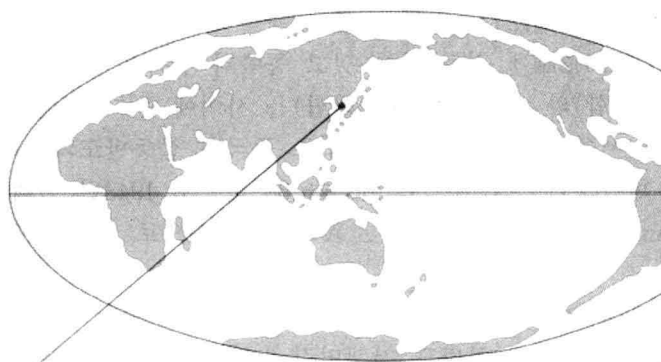
제1장 文化와 藝術	(286)
제1절 문학·음악·무용·연극과 영화	(286)

제2절 미술·조각·도자기 및 건축예술	(299)
제3절 언론·출판 및 문화시설	(303)
제2장 韓國의 敎育	(310)
제1절 敎育 政策과 體制	(311)
제2절 學校 敎育	(312)
제3절 社會敎育과 特殊敎育	(315)
제3장 韓國의 科學·技術	(317)
제1절 韓國 科學技術의 발전단계	(317)
제2절 科學技術 發展을 위한 조치	(320)
제4장 韓國의 體育	(322)
제1절 현대 경기 체육	(322)
제2절 대중적인 체육활동과 전통적인 민족체육운동.....	(325)
제3절 프로스포츠와 국민 여가생활	(326)
제5장 韓國의 宗敎	(328)
제6장 韓國의 生活文化	(333)
제1절 일반 생활양식	(333)
제2절 衣食住 文化	(335)
제3절 한국인의 이름·성과 본	(341)
제4절 명절과 기념일	(342)
제7장 韓國의 의례생활	(348)
제1절 백일·돌·생일·회갑	(348)
제2절 冠禮·婚禮·喪禮·祭禮	(356)

附 錄

부록 1	韓國 歷史 大事記	(370)
부록 2	韓國 歷代王朝 王位系統	(374)
부록 3	韓國 歷代 大統領	(380)
부록 4	韓國의 관광명소	(411)
後記		(435)

한 국 개 황
韓 國 概 貌



한
국
개
황
韓
國
概
貌

제 1 장 自然地理

아시아대륙 북동부에 남동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반도부(半島部)와 크고 작은 섬 수천 개로 되어 있는 한반도는 북으로는 압록강(鴨綠江)과 두만강(圖門江)을 경계로 중국 동북지구와 1,353.2km, 러시아 연해주와 16.2km에 걸쳐 닿아 있고 동쪽과 남쪽은 東海(日本海라 불리기도 함)와 조선해협(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보고 있다. 서쪽은 黃海를 사이에 두고 중국의 산둥반도와 마주보고 있다. 한반도는 상습적으로 일컫는 38° 선으로 1948년 이래 남쪽의 大韓民國과 북쪽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으로 분단되어 있다.

한국은 한반도의 38° 선 이남에 자리한 대한민국의 簡稱이다. 한국의 면적은 99,600km²로서 한반도 전체면적 222,300km² (연해 섬도 포함됨)의 45%에 달하고 중국 山東半島의 2/3에 해당한다. 한국과 영토의 크기가 비슷한 나라로는 영국·뉴질랜드·캄보디아·시리아 등이 있다. 한국은 국토면적이 세계 제108위인 나라이다.

제1절 韓半島의 地形과 氣候

1. 한반도 지형

한반도의 지체구조(地體構造)는 동아시아 대구조체의 일부분인 후기 원생대 중국육괴(中國陸塊)의 동쪽 연변부에 속하는데 그 중 북동지괴(北東地塊)는 시호테알린(Sikhote Alin) 지향사대(地向斜帶)의 상부 고생대 습곡대(褶曲帶)에, 남동지괴는 환태평양 습곡대 중 중생대 습곡대의 일부 지역에 속해 있다. 한반도의 지형은 산지가 전체 토지의 75%를 점하고 있고 북고남저(北高南低)에 동서비대칭(東西非對稱)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 길림성과 접하는 한반도 북쪽 국경에 한국에서 흔히 일컫는 第一高峰인 長白山(한국에서는 白頭山이라 함)이 있다. 북위 $41^{\circ}31' \sim 42^{\circ}28'$, 동경 $127^{\circ}9' \sim 128^{\circ}55'$ 에 걸쳐 있고 해발고도 2,744m, 총면적이 약 8,000km²에 달하는 이 산은 북쪽으로는 장백산맥(長白山脈)이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뻗어 있고 남동쪽으로는 마천령산맥(摩天嶺山脈)이 2,000m 이상의 연봉(連峰)을 이루면서 종단하고 있다. 이 산 동쪽과 서쪽으로는 완만한 용암대지가 펼쳐져 있다. 산정은 거의 4계절 동안 백설로 덮여 있고 山頂部는 백색의 부석(浮石)으로 이루어져 있어 항상 희게 보이는데서 장백산(백두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불함산(不咸山)·개마대산(蓋馬大山)·도태산(徒太山)·태백산(太白山) 등으로도 불려왔다.

북부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고원인 개마고원(蓋馬高原)이 있다. 개마고원은 만장년기지형(晩壯年期地形)으로서 평균해발고도는 1,200m이다. 개마고원의 南界는 부전령산맥(赴戰嶺山脈)이고 西界는 낭림산맥(狼林山脈)이다. 낭림산맥은東西間의 분수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방으로 강남(江南), 남서방향으로 적유령(狄踰嶺)과 묘향(妙香)의 지맥이 잇닿아 있다.

한반도 중부와 남부에는 태백산맥(太白山脈)과 태백산맥의 支脈인 광주산맥(廣州山脈)·차령(車嶺)산맥·소백(小白)산맥과 노령(蘆嶺)산맥이 있다.

태백산맥은 한반도 중부에서 남단에 걸쳐 동해안에 연이어져 있는 500km의 긴 산지이다. 충상운동에 의한 동서비대칭(東西非對稱)의 경동지괴(傾動地塊)로 이루어져 東斜面은 급경사이고 西斜面은 완만하다.

태백산맥에서 뻗어져 나온 차령(車嶺)·노령(蘆嶺)·소백(小白)산맥이 남서로 나누어져 제각기 남해안과 남서의 다도해로 빠지면서 서리아스식 해안을 형성하고 있다.

한반도는 東部가 주로 산지지형인데 반하여 西部는 준평원과 충적평야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황해남·북도 서흥·신막·대평(大坪), 평안남도 덕천·성천, 강원도 삼척·영월·대화·정선, 충청북도 단양, 경상북도 울진 등에는 용식(溶蝕;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침식되는 것을 말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용식지형(카르스트지형)이 분포되어 있다.

한반도는 면적에 비해 크고 작은 하천이 많다. 한국의 등뼈를 이루는 狼林·太白山脈이 東海쪽으로 바짝 치우쳐 있어 하천은 서쪽으로 향해 발달해 있다. 길이 400km 이상의 강으로는 38°선 이북의 압록강(806.5km)·두만강(547.8km)·대동강(大同江 450.3km)과 38°선 이남의 낙동강·한강과 금강 등이 있다. 남부를 흐르는 하천은 비교적 완만한 지대를 흐르고 있으나 강바닥이 높아서 집중호우 때는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평야로는 충적평야와 오랜 침식으로 이루어진 준평원 위에 발달된 피복평야(被覆平原) 및 해안평야(海岸平原)가 있다. 예로부터 곡창지대로 이름난 호남평야는 만경강(萬頃江)과 동진강(東津江)의 넓은 충적층과 주변의 구릉성평야로 되어 있다. 호남평야와 더불어 영산강(榮山江)유역의 나주평야도 대표적인 곡창지대이며 낙동강의 하류지역의 김해평야는 대표적인 삼각주이다. 한반도에는 이 밖에도 대동강 하류지역의 재령평야, 한강 하류의 김포평야,

금강 하류의 내포평야가 있다. 동부와 북부에는 상대적으로 평야가 드물어서 함흥평야(咸興平野 300km²)가 있을 뿐이다.

2. 한반도 기후

한반도는 전반적으로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가 큰 대륙성기후의 지배를 받으나 남부 해안지역은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겨울은 시베리아 한랭기단에 의해 맑은 날이 지속되며 강수량이 적은 건기를 이루고 여름은 북태평양 열대성 기단의 파급에 따라 30℃ 이상의 높은 기온이 계속되며 습윤한 우기를 이룬다.

북부 산악지대와 개마고원의 연평균기온은 10℃ 이하, 중앙부는 10℃ 내외이고 남해안은 14℃, 가장 따뜻한 곳인 제주도는 14.6℃이며 부산·여수도 1월 평균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1) 계절풍 기후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에 면하고 한 면만이 대륙과 접해 있으면서도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성기후에 가까운 것이 특색이다. 특히 겨울은 북서 탁월풍(卓越風)에 의하여 추위가 심하다. 한반도는 남북이 길어 북위 33°에서 44°에 위치하며 또 狼林·太白山脈이 동서를 가르고 있으므로 지역차가 크다.

그러나 기후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아시아 계절풍과 저기압이다. 겨울에는 시베리아의 바이칼호 부근에서부터 몽골지방까지 발생하는 한랭한 고기압이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저기압부로 이동하면서 북풍 또는 북서풍이 북쪽의 한파를 몰고 오기 때문에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다. 여름에는 반대로 되어 계절풍은 해양에서 대륙으로 남풍 내지 남동풍이 부는데 이 때는 고온과 습기 때문에 덥고 구름이 끼며 우기로 변한다.

2) 강수량

한반도의 강우현상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다. 강우의 형태는

불규칙하여 소나기 모습을 보이며 경우에 따라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한다. 서울의 경우, 연간 최대강수량이 2,135mm인 데 비하여 최소강수량은 634mm로서 3배 이상의 차이가 있고 가장 비가 많이 오는 7월에는 최고 1,354.2mm, 최소 158mm라는 불규칙성을 보인다.

한국의 연강수량은 500~1,500mm이다. 이 가운데 60%는 우기(雨期)인 6~8월의 남동계절풍이 가져오는 강우이다. 건기(乾期)인 겨울은 연강수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기에 내리는 비는 소나기성 호우이기 때문에 홍수가 지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기임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기도 한다. 그 강수량은 대체로 계절풍과 지형의 영향으로 남부와 동부지방에 비교적 많고 서부해안과 북부지방에는 적어서 남부와 동부가 1,200~1,500mm, 서부해안과 북부지방이 600~900mm 정도이다. 남해안이 약 1,500mm, 한강 및 청천강 중류가 약 1,300mm로 多雨地에 속하며 자강도(慈江道)와 양강도(兩江道)의 두만강 상류가 800mm 이하, 강원도 남부와 경상북도 평야 일대가 900mm 이하, 평안남도·황해북도 서부가 약 800mm 이하로 이 세 지방은 대표적인 少雨地에 해당한다.

3) 계절 특징

한반도는 4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봄은 차고 건조한 북서계절풍과 여름의 덥고 습기를 가진 남동계절풍이 서로 바뀌는 계절로서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찬 북서계절풍은 약해지고 따뜻한 남동풍이 불기 시작하여 3월 말이면 제주도에는 벚꽃이 핀다(한편 중부지방에서는 4월 하순, 북부지방과 고원지대에서는 5월에 들어서야 핀다).

여름은 남동계절풍이 남쪽 대양의 따뜻한 공기와 습기를 가져오므로 6월 기온은 20℃ 이상이 되고 장마철로 접어든다. 연평균 기온은 남부 해안 14℃, 중부지방 10℃, 북부지방 8℃, 북부 고원 2~6℃ 정도이나 여름 중 가장 더운 달인 8월은 중부의 서울 25.5℃, 남부 26℃, 북부 고원 22℃로서 열대지방의 기후를 연상시킨다.

가을은 유난히 맑고 청명한 날씨가 계속된다. 가을이 되면 한반도는 오색의 단풍으로 물들어 일년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

겨울에는 대륙 내부의 바이칼호와 몽골지방에 고기압이 생기고 태평양상에 저기압이 생겨 강력한 북서풍이 불고 내륙과 중부 동해안지방에 편서풍이 분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체적으로 춥고 쌀늘하며 건조한 기후를 보여 압록강 상류에는 1월 평균기온이 -21.1°C 로 내려간다. 그러나 이렇게 추운 날씨도 고기압이 쇠약해져 계절풍이 쇠퇴하거나 저기압이 통과하여 남풍을 일으키면 반대로 기온이 높아져서 온난한 날이 며칠간 지속되기도 한다.



윤보 김기창 청록산수

제2절 韓國의 自然地理

1. 山脈과 高原

1) 山脈과 高山

38°선 이남에 위치한 한국에서 가장 주요한 산맥은 한반도 중부와 남부 지역에 걸쳐있는 태백산맥과 그 支脈인 광주·차령·소백·노령산맥 등이다.

太白山脈: 태백산맥은 한반도에서 가장 긴 山脈으로서 길이가 500km이고 평균해발고도가 800m이다. 함경남도 안변군(安邊郡) 황룡산(黃龍山 1,268m)에서 시작하여 부산(釜山) 다대포(多大浦)까지 뻗은 이 산맥에는 이름난 산들이 매우 많은데 그 중 1,000m 이상의 중요한 산으로 북한지역에 속한 금강산(金剛山 1,638m)을 비롯하여 설악산(雪嶽山 1,708m)·오대산(五臺山 1,563m)·청옥산(靑玉山 1,404m)·두타산(頭陀山 1,353m)·태백산(太白山 1,561m)과 팔공산(八公山 1,192m) 등이 있다.

태백산맥은 동쪽은 경사가 급한 반면 서쪽은 완만하게 낮아져 평탄한 태백고원을 이룬다. 그리고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와 남서방향으로 완만하게 뻗어 내린 광주산맥(廣州山脈)·차령산맥(車嶺山脈)·소백산맥(小白山脈) 사이로 태백산맥에서 발원한 북한강(北漢江)·남한강(南漢江)·금강(錦江)·낙동강(洛東江) 등이 황해와 남해로 흘러든다.

태백산맥은 嶺東·嶺西지방의 자연적인 장벽을 이루어 두 지방간의 기후·풍토·언어·생활관습 등에 큰 차이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교통에도 큰 장애가 되어 왔다. 그러나 산맥 가운데에는 철령(鐵嶺 685m)·추지령(楸地嶺 645m)·진부령(陳富嶺 529m)과 대간령(大間嶺 641m)·미시령(彌矢嶺 826m)·한계령(寒溪嶺 935m)·대관령(大關嶺